

지역 소식

하루 5분, 온라인 선교 사업의 결실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교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가 주님의 사업을 방해할 걸림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기존의 방식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일은 그 힘과 열정 면에서 더욱 커지고 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존의 접근 방식에만 너무 얽매어 있었기에 이 일을 계기로 우리의 눈이 떠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와서 보고, 와서 돕고, 와서 함께하자고 권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 십이사도 정원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2020년 10월 연차 대회

20 20년 2월 20일에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대면 예배와 활동들이 모두 중단되고 교회 건물이 폐쇄됨에 따라 선교 사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교회에 이웃을 초대하는 일이나 길전도와 구도자 방문도 어려워졌다. 3월에는 해외에서 온 모든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임지를 옮긴 뒤 소수의 한국인 선교사들만 남았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의 긴 터널 속에서도 새로운 선교 사업 기회를 찾아 온라인 선교 사업에 주력했다.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쏟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온라인 선교 사업 방법들을 강구했고, 회원들의 참여가 더해진 결과, 선교 사업의 새로운 결실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누군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이 적어 놓은 잘못된

사실이나 비판적인 글을 접하게 될까 봐 걱정되는가? 인터넷을 보지 않도록 말리고 선교사를 먼저 만나 보라고 설득하고 싶은가?

최근 강남1 와드에서 침례받은 이양호 형제는 교회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말일성도 교회’라는 키워드를 포털 웹 사이트에서 검색했다. 이 형제가 교회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찾았을까? 아니다. 오히려 그는 검색 결과를 통해 여러 회원들의 경험과 간증을 읽게 되었다. 그는 교회 공식 사이트인 ‘comeuntochrist.kr’에서 무료 물문경을 신청했고, 이 계기로 선교사 이시현 장로와 만나 복음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다. 서울 선교부 조술진 자매 선교사는 “과거에는 만나는 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하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다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토론 진행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고 전한다.

하루 5분, 단순하고 위대한 회원들의 노력
이렇게 인터넷에서 교회에 관한



왼쪽 사진: 서울 선교부 테일러 회장 부부와 함께한 계성민 형제의 침례식. 오른쪽 사진: 침례식에서 선교사들과 함께한 이양호 형제의 모습. 두 침례식 모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올바른 정보들이 검색되는 것은 선교사와 회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참여

덕분이다. 회원들은 영상 제작과 글쓰기에 참여하여 개인의 복음 생활과 가치관, 생생한 경험이 담긴 간증을 전하고, 십자가 대신 회원들의 모범과 생활이라는 교회의 상징을 몸소 보이고 있다. 선교사들은 경전 구절에 대한 이야기와 간증, 감미로운 노래와 연주 등 흥미로운 콘텐츠들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간증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회원들도 있다. 이들은 네이버의 후기 성도 광장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되는 글과 영상, 이미지들을 찾아 보고 즐기며,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달고 응원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개인 계정에 공유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프로필에 이미지와 글을 올리기도 한다.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일이지만, 이러한 참여는 온라인 선교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이웃들의 반응들이 달라졌다.”라고 말한다. 선교사에게 복음을 배우던 어떤 이는 대화 도중 인터넷에서 교회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검색했다. 만약 부정적인 내용을 주로 읽고 집중했다면 그날의 복음 공부는 별로 좋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후기 성도 광장 카페”의 글을 접했고 함께 토론하던 서울 선교부 박주연 자매 선교사에게 그것을 보여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네요. 좋은 내용들이 많네요.”

2014년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소셜 미디어 선교 훈련 모임이 열린 후 지난 5~6년 동안 국내 온라인 선교 사업은 서서히 발전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는 더욱 활발해져서 이제 온라인에서 점차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교회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서울 남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천지훈 장로는 약 3년 전 침례받은 새로운 회원으로서 최근 인터넷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3년 전에 선교사들을 처음 만난 직후 인터넷에서 교회에 대해 검색했고, 모범적인 선교사들과는 반대로 교회를 극단적으로 비난한 게시글들을 접하고 큰 실망감을 느꼈다. 다행히도 그는 당시 선교사들에게 다시 만나 오해를 풀 기회를 주었고 침례를 받았으며, 이제는 전임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최근 천 장로가 인터넷에서 교회를 검색했을 때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3년 전 네이버에서 읽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교회에 대한 간증과 정확한 논평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웃들이 교회와 후기 성도에 대해 배우게 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온라인상의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 회원들을 강화시키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며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침례받은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계성민 형제도 온라인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접했다. 그는 오랫동안 여러 종류의 교회를 다녔지만 계속해서 영적인 공허함을 느꼈고, 온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검색하게 되었다. 온라인에서 교회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얻으면서 계 형제는 울산 지역의 선교사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가운데 지난 8월 침례를 받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의 메시지들

최근 독일에 사는 어떤 한국인은 온라인에서 교회 음악 영상을 보고 선교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음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그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 선교사들은 그를 독일의 선교사들에게 소개했다.

김수현 자매 선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최근 선교 사업에서 방법의 한계나 지역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5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선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향력으로 전 세계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김 자매가 만난 어떤 이웃은 지난 1년 동안 교회들을 찬찬히 알아보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인터넷으로 많은 자료들을 읽고 연구했다. 그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생겨 ‘침례받고 싶다’며 선교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원리들을 배우고 침례를 결심했다.

회원과 선교사들이 직접 길에서 주님의 자녀를 찾아 나서는 일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한동안 불가능해졌지만, 복음의 말씀은 사회적 거리도 자가 격리도 없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의로운 손가락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준비된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한국 성도들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 지난 9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과 함께 하는 전국 영적 모임”이 열렸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영된 본 비대면 영적 모임은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의 감리와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제임스 알 래스번드 장로의 사화로 진행되었다. 한국 성도들은 일요일 비대면 예배 모임 시간에 영적 모임을 시청하며 선지자들을 통해 오는 주님의 메시지에서 영감과 용기를 얻었다.

옥스 회장 부부를 비롯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게릿 더블유 공 장로 부부와 관리감독단의 제럴드 코세 감독 부부가 연사로서 말씀했다.

코세 감독은 이 혼란의 시기에 본질을 잃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우선 순위를 올바르게 세우도록 독려했다. 그는 “김볼 회장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복음 생활의 단순함과 순수함을 강조했다.

공 장로는 자라나는 세대와 이웃을 복음으로 돌보도록, 복음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전했다. “가정과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학습, 봉사과 활동, 개인 발전에서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 새로운 개종자와 다시 돌아온 회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을 환영해 주십시오. 각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영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옥스 회장이 전한 말씀은 “기쁨”에 대한 것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이 영적 모임은 일상의 소소함에서 오는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도록 촉구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기 위해 그분께 돌아가는 경험은 충만한 기쁨으로 묘사됩니다. 현재와 영원을 아우르는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 우리는 삶에서 매일 그 권능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고통을 지고 힘들어하며 비탄해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옥스 장로는 특히, “타인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비로소 성스러운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라고 전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게는 표준을 지키고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권유하고, 장년 세대에게는 끊임없이 봉사하도록 권유했다. “성약의 길에서 우리는 타인을 돕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줄 경험을 추구합니다. ... 신앙이란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속죄의 효력을 믿으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 약속된 축복을 신뢰하십시오. 충실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현세 혹은 영원한 세상에서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원주 지역의 교회 회원인 최내영 형제는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그 자체가 불편함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옥스 회장의 말씀 중에서, 행복과 기쁨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지상에서 잠시 동안 유지됐다 사라질 행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히 지속될 기쁨을 찾으려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변경—제2보좌 존 에이 맥쿤 장로



제임스 알 래스번드 장로
제1보좌

다카시 와다 장로
회장

존 에이 맥쿤 장로
제2보좌

202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당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던 엘 토드 버지 장로가 감리감독단의 제2보좌로 부름받았을 때, 한국, 일본, 괌 및 미크로네시아, 몽골 내 여러 회원들의 마음은 놀라움과 아쉬움으로, 그리고 버지 감독과 그의 아내 로리 버지 자매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물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임무 지명에 따라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이 변경되었다. 다카시 와다 장로는 계속해서 북 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제임스 알 래스번드 장로는 제1보좌로 봉사하며 존 에이 맥쿤 장로가 제2보좌로 북 아시아

회장단에 합류했다.

존 에이 맥쿤 장로는 2019년 4월 6일, 55세의 나이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시받았다. 부름받을 당시에 그는 유타 남 지역에서 지역 칠십인이자 칠십인 제5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맥쿤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재무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2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재정학으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캐피탈 투자 자문 회사(Capitol Investment Advisors)의 수석 부사장 겸 전무 이사로 일하던 중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2016년에는 자선 사업 재단에서 주요 기증 물품에 대한 기증자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되었다.

맥쿤 장로는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와드 재정 서기, 장로 정원회 회장, 와드 청년 회장단 보좌, 지부 회장단 보좌, 감독단 보좌, 감독, 스테이크 회장, 유타 프로보 선교부 회장 등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존 앨런 맥쿤은 1963년 6월 20일에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에서 태어나, 1984년에 데브라 앨런 킹스버리와 결혼하여 슬하에 네 자녀를 두었다. 북 아시아 지역 교회 회원들은 맥쿤 장로의 지도력과 봉사를 고대하고 있으며 맥쿤 장로와 그의 아내인 데브라 맥쿤 자매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전하고 있다. ■

대전 스테이크 센터 기공식: “이 땅에 거하였던 모든 성도의 기도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대전 스테이크 센터의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은 야외에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권고에 따라 소수의 인원만이 현장에 참여했다. 이 순간을 고대해 온 대전 스테이크의 성도들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각 가정에서 기공식에 참여했다.

대전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이 기공식은 뜻깊고 가슴 저미는 순간이었다. 1976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고든 비 힝클리 장로의 감리 하에 착공했던 선화동의 기존 스테이크 센터가 재개발 지역으로 수용됨에 따라, 스테이크 회장단은 새로운 스테이크 센터 부지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전 스테이크 성도들은 기도와 열정적인 선교 사업을 통해 스테이크의 발전을 위해 애썼다. 또한 더불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소망, 신앙, 노력이 하늘에 닿아,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대전 스테이크 센터가 세워지게 되었다.

기공식에서 말씀한 대전1 와드 정양수 감독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2018년 5월 27일에 4개의 와드가 마지막 모임을 갖고 선화동 스테이크 센터 건물을 뒤로 하고 대전1, 2 와드로 통합되었을 때,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이유는 건물이 없어져서라기보다는, 그곳에서의 경험과 활동들, 그리고 신앙을 강화시켰던 경험들 때문일 것입니다. 유성과 삼성 지역의

건물에서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또다시 그곳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이 스테이크 센터도 예배와 활동과 선교 사업의 중심이 되고 새로운 구도자를 만나는 만남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완공될 때 대전 스테이크의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곳을 이용하고 가득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다시 결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자비와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바로 이 대전 지역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또한 마지막 연사로써 대전 스테이크의 김용조 회장은 다음과 같이 사랑과 권고의 말씀을 전했다.

“지금까지 대전 스테이크가 훌륭하게 성장해 왔듯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주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빌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하라는 권고처럼, 이 신앙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세상에서 의로운 싸움을 이기고 주님의 증거하는 그분의 충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처럼 각자의 등에 신앙의 기름을 채워서 이곳 대전 스테이크에서, 우뚝 선 산에서 빛나는 성령과 같이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도록 신앙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스테이크 센터는 대전1, 대전2 와드의 집회소로 사용될 예정이며, 2021년 11월경에 완공될 예정이다. 대지 면적 2689㎡ 위에 지상 3층으로 세워지며, 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친 연면적은 2759㎡로 예상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36에 위치한 집회소 부지는 유성 IC에서 약 2km,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500m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

* 물문서 9:36 참조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5명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부름받은 몇몇 선교사들은 국내 임시 선교부에서 봉사를 시작함)



김동영 장로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선교부
(임시: 서울 선교부)



김민제 장로
서울동 스테이크
익정부 와드
부산 선교부



김효빈 자매
경기 스테이크
신갈 와드
부산 선교부



이은솔 자매
서울 스테이크
일산 와드
뉴저지 모리스타운
선교부
(임시: 서울 선교부)



정예진 자매
서울남 스테이크
강남1 와드
일본 도쿄 남 선교부
(임시: 서울남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강릉 지방부

원주 지부 회장: 박성욱 형제(전임: 정병일 형제)

창원 스테이크

창원 스테이크 회장: 조용휘 형제(전임: 이송근 형제)

제1보좌: 권대업 형제

제2보좌: 박충권 형제

거제 지부 회장: 신기문 형제(전임: 장지남 형제)

밀양 지부 회장: 이중현 형제(전임: 박충권 형제)